

5. 한국기업 진출 현황

우리기업들의 대 베트남 진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 3월 누적 3,687건의 직접투자(FDI)가 이루어지고 있고, 약 2,893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2년 베트남과의 수교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본격화 되었으며 초기에는 대기업들이 가전, 철강 등 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 진출을 시작하였다. 1995년 미국-베트남 국교 정상화 이후 대미 우회 수출기로서 베트남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섬유, 봉제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 조선 및 유통업에 대한 대규모 사업이 우리기업의 투자규모 확대를 선도했으며, 섬유봉제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었다. 2005~2008년은 베트남에서 한국기업의 투자열풍이 가장 높았던 시기로 2007년 베트남의 WTO가입 등을 계기로 제조, 건설, 부동산 개발 등 대형 투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2008년 촉발된 금융위기, 2010년 유럽재정위기 등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신규투자도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산업으로 투자영역이 확대되고 증액투자가 증가하는 등 투자의 질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베트남 주요 진출기업 현황

진출지역	회사명	업종	투자금액 (천 US\$)	종업원 (한국)	종업원 (외국)
하노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SEV)	제조업	3,500,000	70	32,000
하노이	한일(주) 하노이사무소	제조업	3,000(예정)	70	1,106
하노이	경남비나(현지법인)	건설·공사업	721,000	5	10
호치민	금호타이어 베트남 유한책임회사	제조업	350,000	22	738
호치민	태광비나	제조업	290,000	80	23,000
카잉호아	현대비나신조선소	제조업	250,070	70	3,400
호치민	현대비나신조선소	제조업	250,070	70	3,400
하노이	SK 텔레콤 베트남	서비스업	220,000	10	1,400
하노이	동리원비나	건설·공사업	219,000	2	3
하노이	대하법인(대우호텔)	서비스업	160,325	5	630
푸토	방림네오텍스(주)(비엠티본사)	제조업	120,000	22	1,800
하노이	방림네오텍스(주)(하노이지사)	제조업	120,000	22	1,800
호치민	다이아몬드플라자	서비스업	92,000	5	154
호치민	화승비나	제조업	64,000	70	15,000
호치민	롯데베트남쇼핑	서비스업	61,300	6	900

진출지역	회사명	업종	투자금액 (천 US\$)	종업원 (한국)	종업원 (외국)
하노이	대한생명보험(주)	금융·보험	60,000	3	70
남딩	영원남딘(주)	제조업	53,000	6	10,094
하노이	대우하넬전자(공장)	제조업	52,000	4	640
호치민	창신베트남	제조업	50,000	52	25,000
흥이엔	아성비나	제조업	50,000	1	13
하노이	미원 베트남	제조업	45,485	12	1,000
하이퐁	VPS	제조업	42,256	3	227
호치민	오리온	제조업	40,000	27	2,018
호치민	TSC(대한전선합작법인)	제조업	40,000	6	210
흥이엔	현대알루미늄비나	제조업	37,500	15	200
호치민	CS 윈드타워	제조업	37,000	20	1,000
호치민	삼성비나일렉트로닉스	제조업	36,500	20	300
호치민	포스코 베트남	제조업	519,000	29	629

현지 진출 한국기업 정보는 KOTRA에서 발간한 2011/2012 해외진출한국기업디렉토리에 수록되어 있다. (2년주기 발간) 동 자료는 KOTRA 본사 무역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구입(책자 또는 파일)할 수 있다.